



라틴아메리카 자원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이 시작되면서, 자원의 보고인 라틴아메리카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구리, 철광석, 은, 금, 주석, 알루미늄, 니켈 같은 지하자원에서 밀, 옥수수, 콩, 사탕수수, 커피, 바나나, 카카오 등의 농산물, 풍부한 목축, 과일, 수산물과 생물자원에 이르기까지 실로 어마어마하게 자원이 풍부한 땅. 이런 라틴아메리카를 가리켜 흔히 “황금방석에 앉은 거지”라고 부른다. 그 혜택은 언제나 소수의 지배계급과 외국자본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갔을 뿐 국민은 여전히 가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2003년 볼리비아의 가스투쟁에서 보듯이, 소수의 특권층이 들이 국민의 이해관계와 상치되는 행보를 하면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이 되었다. 부존자원이 태부족한 우리나라도 민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라틴아메리카의 자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해당 지역의 국민을 외면한 협정,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협약은 지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적 판단에도 최소한의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웹진 《트랜스라틴》은 라틴아메리카 자원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차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자원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려고 한다. 먼저 이번 호에서는 자원에 얽힌 라틴아메리카의 수난사를 통해 풍요로운 자원이 야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는 한편, 국제적으로 가장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석유에 얽힌 국제정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베네수엘라의 석유 정책을 조명해 보았다.

■ 자원의 저주

서 라 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 한다. 라틴아메리카 이야기이다. 풍요로운 천연자원과 농산물 덕분에 늘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았지만, 또한 늘 기대를 저버린 지역이 라틴아메리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다르다는 것이다. 원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의 고공비행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 이에 힘입어 적어도 라틴아메리카 몇몇 국가는 일시적 성장에 뒤이은 장기 침체라는 악순환에서 탈피하여 확고한 발전 가도에 접어들리라는 진단이다. 가령, 브라질은 지난 4월 14일 최대 매장량이 330억 배럴에 이르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정확한 매장량은 앞으로 한두 달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지만, 발표대로 라틴아메리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유전으로 브라질을 세계 17위의 산유국에서 톱10에 진입시킬 수 있을 만한 양이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풍부한 자원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수탈 구조의 고착화, 주기적인 가격 폭락, 대체 자원의 출현, 개발의 후유증, 외세의 개입, 정경 유착, 이에 따른 혁명과 반혁명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대체로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여 발생했다. 즉, 라틴아메리카가 통제하기 쉽지 않은 세계적인 맥락이 야기한 현상들이었다. 따라서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21세기에 도 라틴아메리카가 자원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우리라는 보장은 없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1532년 11월 16일 잉카제국의 황제 와타왈파(Atahualpa)는 피사로의 계략에 걸려 이 건물에 갇히게 되었다.

고 속단하는 것도 곤란하다. 이 글에서는 자원과 관련된 라틴아메리카의 수난사를 돌이켜보고자 한다.

1. 황금 숭배자들

정복 초기의 서구 항해술은 그다지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되었다. 따라서 바라는 것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 아니면 그 넓은 대서양을 건너 미지의 세계 아메리카로 올 이유가 없었다. 더러 포교의 열정에 불타 있는 선교사들도 있었고, 더러 본국에서 난처한 상황에 빠져 도피해 온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



아타왈파는 갇혀 있던 건물 벽에 줄을 긋고 피사로에게 석방의 대가로 이만큼 높이까지 황금을 채워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아메리카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일확천금의 꿈 때문이었다. 멕시코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의 말파나 발이나 갈려고 아메리카에 온 것이 결코 아니었다. 특히 코르테스가 아스테카를 정복하고 얻은 전리품은 황금에 눈이 먼 정복자들을 양산했다. 그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잉카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였다.

피사로는 잉카 왕조의 마지막 왕인 아타왈파를 오늘날의 페루 북부 카하마르카에서 포로로 잡았고, 아스라한 전설 같은 성공담을 남겼다. 아타왈파는 목숨을 살려주면 자신이 감금되어 있던 방을 황금으로 한 번, 은으로 두 번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프란시스코 피사로 원정대는 몸값으로 6톤에 육박

하는 금과 그 두 배에 달하는 은을 채겼다. 잉카의 수도 쿠스코를 함락시킨 뒤에는 그보다 더 많은 금은을 채겼다. 그럼에도 정복자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였다. 황금의 땅 엘도라도를 찾아 헤매는 사람만 해도 부지기수였고, 황금을 더 가져오라고 원주민들을 들볶는 일은 일상사였다.

원주민들에게 비친 정복자들은 황금에 환장한 사람들이었다. 원주민들은 때로는 정복자들의 물욕을 이해할 수 없어서 기상천외한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아메리카 정복 초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시달리던 부족이 어느 날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중앙에는 바구니가 놓여 있고, 부족민들은 춤을 추며 그 주위를 돌면서 간절히 소원을 빌고 있었다. 바구니에는 황금이 담겨 있었다. 정복자들에게 황금 송배가 전염된 것일까? 그렇지 않았다. 부족민들은 황금에게 빌었다. 제발 정복자들에게 명령을 내려 자신들을 그만 괴롭히게 해달라고. 정복자들이 하도 황금을 찾으니, 황금이 그들의 신이겠거니 생각한 것이다.

2. 실버러시, 그 죽음의 행진

애당초 황금은 라틴아메리카에 그다지 풍부한 광물이 아니었다. 프란시스코 피사로 원정대가 어마어마한 황금을 채긴 후에 아메리카로 온 정복자들은 늘 황금에 굶주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은광이 1545년 오늘날의 볼리비아 포토시(Potosí)에서 발견되면서 그 굶주림을 달랠 수 있었다. 은광이 발견된 봉우리는 세로리코(Cerro Rico) 즉 ‘풍요로운 봉우리’라고 칭하게 되었고, 1572년 포토시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제국의

도시'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부여 받았다.

1545년부터 1800년까지 세로 리코 광산을 필두로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은은 대략 13만 3,000톤에 달했다. 그 중 75퍼센트 정도가 유럽에 반입되고, 이 중 32퍼센트는 아시아로 흘러 들어왔다. 스페인은 이를 바탕으로 교황청을 좌지우지하고, 이슬람의 팽창을 저지하고, 신교도 억압을 주도하면서 유럽에서 제국의 위용을 한껏 떨쳤다.



포토시에서 만들어진 은화. 처음에는 은괴를 스페인으로 가져갔으나 나중에 광산에 화폐주조소를 세우고 은화를 만들어냈다.

서구 전체로 볼 때, 초기 자본축적은 아메리카의 은에 힘입은 바 크다. 나아가 아메리카 '발견' 이전의 지속적인 유동성 위기를 해소시켜 준 것도 아메리카의 은이었다.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고 있던 유럽의 붕괴를 아메리카의 은이 막은 것이다. 16세기에 대대적으로 보수한 중국의 만리장성 역시 명나라에 흘러든 아메리카의 은 때문에 가능했던 대역사였다고 하니, 아메리카의 은은 당시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실버러시는 광부로 차출된 원주민에게는 죽음의 행진이었다. 최대 대규모의 원주민 동원령은 1575년 부왕 툴레도의 명령이었다. 부왕은 잉카 시대의 노동력동원 시스템인 미타(mita) 제도를 이용, 안데스 17개 지방에 걸쳐 무려 9만 5,000명의 원주민을 동원했다. 부왕의 명령에 따라 원주민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알아서 포토시까지 가야 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중노동과 추위와 굶주림이었다.

심한 경우, 그들은 월요일 아침에 갠도에 투입되어 일요일 아침이 되어야만 나올 수 있었다. 수많은 원주민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으니, 갠도 속에 들어가는 것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은 제련에 사용된 수은에 중독되어 죽어간 사람 또한 부지기수였다.

3. 사탕수수와 진흙 과자

라틴아메리카의 지역 구분은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난다. 지리학적 기준, 문화권적 기준, 종족적 기준, 언어적 기준 등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경계선을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민시대 대규모 사탕수수 재배의 유무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사탕수수는 수확하자마자 가공하지 않으면 당분이 분해되기 때문에 수확에서 제당까지 단기간에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더구나 사탕수수는 무덤고 강수량이 풍부한 곳에서 자란다. 이 두 가지 조건은 흑인 노예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거 유입된 주요 원인이 되었고, 특수한 종족적·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카리브 해의 섬나라들이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브라질 북동부나 콜롬비아 카리브 연안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규모 사탕수수 재배가 결국 빈곤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이다. 과잉생산 때문에 혹은 세계적인 불경기가 닥칠 때의 가격 폭락, 사탕수수와 설탕 수입국에의 종속, 곡물 경작지 감소에 따른 식량 자급률 급감 등이 사탕수수 단일경작 국가들이 겪게 된 문제점이었다. 사탕수수가 지력을 고갈시키는 작물이라는 점도 큰 문제였다.

얼마 전 국내 방송에서 보도되어 충격을 준 아이티의 진흙 과

자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이티 빈민들이 곡물을 살 돈이 없어서 진흙, 물, 소금, 식물성 마가린을 섞어 만든 진흙 과자로 연명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런 사태가 전 세계적인 곡물 가격의 상승 때문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볼아야 할 부분이 있다.



아이티의 민동산(위)과 진흙과자(아래)

아이티는 지리적으로 열대 우림이 우거져야 할 위도에 위치해 있다. 흙밖에 먹을 것이 없을 만큼 황량한 자연조건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되었다. 삼림 남벌로 상당 지역이 황폐해졌고, 따라서 초근목피 대신 진흙이 연명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곳들이 많아졌다.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다보니 삼림이 훼손된 측면도 있지만, 좀더 근원적으로 파고들면 사탕수수 경작의 폐해이기도 하다. 사탕수수 재배로 지력이 쇠퇴해지자 새로운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삼림을 훼손한 결과이다.

18세기에 사탕수수와 설탕을 바탕으로 미국의 13개 영국령 식민지 주보다 유럽으로 더 많은 수출을 하던 아이티가 이 지경에 빠진 것을 두고 독립 이후의 실정을 주범으로 지목하는 견해가 있다. 물론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18세기 브라질 북동부의 상황이 지금의 아이티와 같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브라질의 첫 수도인 살바도르가 있는 지역이고, 카리브 해보다 먼저 대대

적인 사탕수수 재배에 나섰던 곳이었다. 하지만 유럽과 거리가 더 가까운 카리브 해 여러 섬에서 사탕수수 재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브라질 북동부의 사탕수수 경작은 위기를 맞았다. 그리고 지력 고갈로 생산성마저 떨어졌을 때, 브라질 북동부 지방은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했다. 브라질 전체로 볼 때 사탕수수와 설탕은 1888년 노예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여전히 중요한 산업이었다.

최근에는 에탄올의 원료로 각광을 받으며 재배지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브라질 북동부 지역만은 18세기 이래 브라질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1693년 미나스제라이스 주에서 금이 발견되어 남동부 지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면서 포르투갈은 1763년 식민수도를 아예 리우데자네이루로 옮긴 터였다. 게다가 지력이 고갈된 북동부 지역의 토지는 곡물 경작에도 부적절해서 자급자족도 힘든 지경이었다. 또한 사탕수수 황금기에 대규모로 들어온 흑인노예들로 인해 북동부 지역은 오늘날까지도 흑인 비중이 가장 높아 국가발전계획에서 차별받는 지역이다. 정치적, 경제적, 인종적으로 북동부 지역이 부흥의 기회를 가지기는 쉽지 않았다. 단일경작은 이처럼 심각하고 오랜 후유증을 남겼다.

4. 커피의 정치학

1822년 브라질에 독립을 안겨준 것은 설탕이었다는 말이 있다. 브라질 북동부의 몰락이 결국은 독립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이야기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커피는 1889년에는 공화정을, 1930년에는 제툴리우 바르가스 정권을 탄생시켰다. 커피는 브라질 현대사에서 그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브라질의 커피 경작은 18세기 브라질 북부 파라 주에서 시작되었다. 커피가 브라질 남동부로 진출한 것은 1810년대로 처음에는 리우데자네이루 주에서 경작이 시작되어 차츰 상파울루 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850년에는 전 세계 생산량의 50%를 차지함으로써 브라질 커피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대규모 커피농장을 소유한 농장주들은 동 페드루 2세의 제정 브라질의 버팀목이었을 뿐더러 그들 자신도 황제의 비호와 유례없는 커피 특수로 유럽 귀족들을 능가하는 영화를 누렸다.

그러나 커피 특수로 브라질 사회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식민시대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브라질의 구체제는 존립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커피 특수가 낳은 풍요가 근대화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커피 생산지와 항구를 잇는 철도와 도로 건설,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의 발전은 브라질 국민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주었지만, 제정과 노예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받아들여졌다. 동 페드루 2세는 점진적인 노예제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민들은 제정까지 문제 삼았다. 1888년 황제의 뜻대로 마침내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하자, 역설적으로 공화주의자들은 크게 힘을 키울 수 있었다. 갑자기 공화주의자들 편에 붙어버린 노예 소유주들 덕분이었다. 결국 1889년 브라질 제정은 몰락하고 공화정이 들어섰다.

커피는 동 페드루 2세뿐만 아니라 제툴리우 바르가스 대통령도 웃기고 울렸다. 19세기 말부터 브라질의 커피 생산은 과잉 상태가 되었고, 1906년에는 최초의 가격 대폭락을 겪었다. 그러나 이는 1929년의 가격 대폭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1929년의 대폭락은 경제대공황으로 미국이 커피 수입을 금지하면서 발생하였다. 브라질은 1930년대에 무려 7천 8백만 포대의 커피를

불에 태워버리거나 바다에 내버려야 했다. 판로를 잃고 창고에 쌓여 있다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커피였다. 커피 분야 종사자들만 치명타를 입은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전대미문의 혼란에 빠졌다. 당시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그랬지만 브라질도 거의 모든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 수입 대금은 대부분 커피 수출로 충당되었다.

1930년 제툴리우 바르가스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 위기로 야기된 사회 불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전 국민적인 환멸 덕분이었다. 바르가스는 ‘새로운 국가’ 건설을 표방하고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한 나라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바르가스의 1차 집권기 동안에 커피는 여전히 브라질 총수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수입대체산업화 정책만으로는 바르가스가 1945년까지 장기 집권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가격이 폭락하고 커피 생산자가 줄어들고 품질이 떨어진 커피를 대규모로 폐기하는 와중에도 브라질은 저가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였다. 대외무역 수지를 맞추는 데 커피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하지만 커피의 교역조건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가령, 1967년 콜롬비아 대통령 카를로스 예라스 레스트레포는 한탄하였다. 1950년에는 지프차 한 대 가격이 커피 17포대 가격에 해당했는데, 1967년에는 지프차 한 대를 사려면 커피를 57포대나 팔아야 한다고. 그는 한탄에 그쳤지만, 1951년 재집권에 성공한 바르가스는 이미 1954년 권총으로 가슴을 쏘아 자살했다. 그가 남긴 유언장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커피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없는 데 대한 자괴감을 토로하는 대목이 들어있었다.

5. 자원과 혁명

체 게바라가 신화적인 인물로 남게 된 데에는 분명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남의 나라 혁명에 뛰어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정의의 상징처럼 여겨질 만하다. 하지만 왜 하필 쿠바였을까? 체 게바라의 조국 아르헨티나 역시 페론주의, 군부 쿠데타, 계급 갈등 등으로 충분히 어지러웠고, 자신의 인생향로를 결정한 곳이 페루의 한센병 촌에서였다고 하는데 어째서 뜬금없이 쿠바혁명에 뛰어든 것인가?

그러나 체 게바라가 조국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여행길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온대 곡물 생산지역, 즉 기호품이 아니라 밀 등의 곡물을 주로 생산하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등은 독립 직후의 혼란이 그나마 순조롭게 수습되고 19세기 말에는 안정기로 접어들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188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는 대체로 장기 호황을 누렸고, 1940년대는 2차 세계대전 특수와 전후 미국의 대대적인 세계 경기부양에 힘입어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비해 경제적·사회적 압력이 그리 거세지 않았다. 페론이 집권 1기(1946-1952)를 비교적 순탄하게 보낸 것도 그 덕분이다. 물론 집권 1기 말은 경기 후퇴, 개혁의 후유증, 대선의 임박 등으로 그리 평탄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체 게바라는 이 시기 상당 기간을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의 소재가 된 그 유명한 젊은 날의 무전여행에 바치고 있었다.

1951년 10월 길을 떠나 이듬해 8월에 돌아온 체 게바라는 아르헨티나의 모순에 대해 자각하기 전에 이미 여행 중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적 모순에 눈을 떴다. 그 최초의 순간이 세계 최대의 구리광산 추키카마타에서였다.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혀 일자리를

못 구해 인생막장이나 다름없는 광산으로 가던 부부를 만난 것도 추키카마타에서였다. 또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단돈 1센트의 임금 인상도 아까워하는 미국 기업 아나콘다의 행태에 분노한 곳도 추키카마타였다. 다만 추키카마타에서의 체 게바라는



칠레의 추키카마타 구리광산. 세계최대의 노천광이다.

아직 혁명가는 아니었다. 구리광산을 외국자본에 맡겨두자는 주장과 국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아직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쪽 주장이 관철되든 그저 노동자들이 가혹한 노동조건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랐을 뿐이다. 미국이 자국 기업의 이해관계 때문에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정권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파렴치하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훗날 1970년 탄생한 아옌데 정권이 이듬해 구리 산업 국유화를 선언했을 때, 미국은 이를 집요하게 방해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설득해 칠레 구리 수입을 제한하고, 아나콘다 등의 구리 관련 기업을 내세워 국제시장에서 칠레 구리를 차압하고, 자국의 비축용 구리를 풀어 가격 하락을 시도하고, 칠레로의 자본 유입을 방해하였다. 칠레의 최대 수입원인 구리 수출의 차질은 결국 칠레 경제를 마비시키다시피 했고 아옌데 정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체 게바라는 의대를 졸업하고 1953년 7월 다시 여행을 떠난다. 이 두 번째 여행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아메리카의 병사”가 되기 위하여 혁명을 찾아 나선 여행이었다. 그가 찾던 혁명들은 자원 루트를 따라 이미 진행 중에 있었

고, 그래서 먼저 볼리비아로 가게 된다. 식민시대 때부터 수많은 광부들을 집어삼킨 광산들이 있는 이 나라에서는 이미 1952년 혁명이 성공하여 개혁의 회오리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중산층과 노동자들이 제휴한 정당인 민족혁명운동(MNR)을 이끌던 빅토르 파스 에스텐소로는 토지 분배와 주요 자원 국유화에 착수했다. 국영 볼리비아광업공사(COMIBOL)는 이때 탄생했고 볼리비아 역사에서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 오루로와 포토시의 은 광산 및 주석 광산을 국유화함으로써 주석 재벌인 파티노 가문을 비롯해 볼리비아를 좌지우지하던 세 가문의 과두지배체제에 일격을 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 게바라는 볼리비아 혁명에 실망하게 된다. 새 정권의 유력자들은 이미 권력의 달콤함에 빠져 있고, 원주민들은 여전히 자긍심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혁명 지도부는 민중 위에 군림하고 민중은 혁명의식이 부족한 볼리비아 혁명의 표류를 예감했던 것이다. 민족혁명운동 정권은 1964년까지 집권했지만 체 게바라의 예감처럼 그다지 순탄한 항로는 아니었다. 에스텐소로만 해도 1956년에는 파티노 가문의 보복으로 역풍을 맞고 1964년에는 군사 쿠데타로 실각하게 된다. 세계적인 갑부였던 시몬 이투리 파티노가 볼리비아를 좌지우지했던 것처럼, 그 아들인 안테노르 파티노 역시 수시로 정치에 개입했던 것이다. 안테노르 파티노는 주석 국유화로 그다지 손해를 본 것도 아니었다. 그가 넘긴 주석 광산은 이미 순도가 떨어져 있었고, 광산은 넘겨주었지만 여전히 주석 유통과 가공을 장악하고 있었다. 안테노르 파티노가 참지 못했던 일은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의 감소였다.

아무튼 볼리비아에서 환멸을 느낀 체 게바라는 과테말라에 가 보라는 주변의 조언에 솔깃하게 된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

라과를 거쳐 과테말라에 이르는 길을 체게바라는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의 영토” 여행으로 규정했다.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는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경영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기업이다. 19세기 말까지 미국 기업들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자재와 농산물을 싸게 수입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는 생산성 극대화과 비용절감을 위해 생산, 운송, 유통, 판매의 수직적 통합을 시도했다. 라틴아메리카에 진출하여 광대한 토지를 확보하여 직접 생산에 나서고, 철도 부설과 항만 정비와 대규모 수송선 확보로 운송을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통 부분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 최초의 다국적 기업이 출현한 것이다.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사가 진출한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여 위정자들을 매수하거나 이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심지어 그들이 소유한 땅과 생산 및 운송 시설을 해당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정받았다. 온두라스 같은 나라는 바나나 단일경작으로 전환되고, 과테말라 역시 커피와 더불어 바나나가 주요 산물이 되었다. 코스타리카와 콜롬비아도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의 영향력 아래 들게 되었다. 소위 ‘바나나공화국’이 탄생한 것이다.

체 게바라가 과테말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르벤스 정권의 개혁의지 때문이었다.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의 횡포는 독재자 호르헤 우비코 정권 때(1931-1944) 최고조에 달했다. 우비코가 실각하고 1945년 대통령에 당선된 후안 호세 아레발로 베



볼리비아의 주석왕(tin baron), 시몬 이투리 파티노 (1860~1947). 20세기 초반 볼리비아의 경제와 정치를 좌우한 인물이었다.



과테말라의 하코보 아르벤스 대통령이 공산주의와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한 뉴욕타임스와 머리기사. 1953년 CIA가 사주한 이란의 쿠데타가 미국 석유메이저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과테말라의 쿠데타는 ‘민주주의 수호’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바나나회사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달러를 요구했다. 25배를 상회하는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은 과테말라 정부가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의 납세 실적에 따라 수용가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의 공공연한 탈세가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었다. 그러자 미국은 1954년 6월 군사 쿠데타를 지원하여 아르벤스 정권을 붕괴시켰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결정한 군사개입이었지만 CIA의 강력한 건의가 작용했다. 하지만 CIA의 건의는 국가안보 차원이 아니었다. CIA 국장 앨런 델레스는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의 중역을 역임한 경력이 있었고, 그의 형 포스터 델레스도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를 대변하는 변호사였다.

1953년 12월 체 게바라가 과테말라에 왔을 때 미국과의 갈등은 이미 고조되어 있었다. 당시 과테말라는 라틴아메리카 다른 국가들에서 피신한 정치범들이 많았다. 이들은 자신들을 받아준 과테말라를 위해 기꺼이 무장투쟁에 나설 각오가 되어 있었다.

르메호는 22차례의 군사 쿠데타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점진적인 개혁을 시도했다. 그리고 1950년 그의 뒤를 이은 하코보 아르벤스 대통령은 1952년 비경작토지 수용을 포함한 혁명적인 토지개혁 안을 내놓았다. 과테말라 정부는 1953년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에 토지 수용가로 627,572달러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를 대변한 미국 국무부는 거의 1600만

그러나 아르헨스 정권이 너무 쉽게 붕괴되면서 이들은 당장 신변의 위협을 느껴 또다시 다른 나라로 정치 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 민족주의적 정권이 외세의 개입으로 허망하게 무너진 데 공분을 느끼면서, 분노한 것은 그들만이 아니었다. 라틴아메리카 전체가 반미 감정으로 들끓고, 1898년 미국이 스페인과의 전쟁에 승리하여 푸에르토리코를 양도받고 쿠바를 사실상 보호령으로 둔 사건을 상기했다. 멕시코로 탈출한 체 게바라가 기꺼이 피델 카스트로의 수하에 들어가 쿠바혁명에 참여하게 된 일은 1898년과 1954년을 동일시하던 당시 라틴아메리카 상황에서는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쿠바 혁명정권이 미국에 맞서면서 라틴아메리카인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쿠바가 제기한 무장투쟁의 필요성에 수많은 라틴아메리카인들이 기꺼이 게릴라 전사로 자원하게 된 것도 미국의 과테말라 군사개입이 남긴 역사적 유산이었다. 미국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천명한 것처럼 “선량한 이웃”이 아니고, 군사개입에는 무장투쟁으로 맞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미국의 과테말라 군사개입 때 형성되었던 것이다. 체 게바라의 행보 역시 그 공감대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감대는 자원의 저주에 대한 응답이었다.

6. 석유와 베네수엘라

석유는 라틴아메리카인들에게도 일찍부터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이미 1938년에 멕시코의 라사로 카르데나스 정권이 석유 국유화를 추진하였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이를 따랐으며, 베네수엘라는 1960년 OPEC 창립회원국이 되었다. 또한 1990년대의 민영화 바람도 석유 부문에서는 대

체로 예외였다. 덕분에 멕시코의 PEMEX, 베네수엘라의 PDVSA, 브라질의 PETROBRAS 같은 거대 국영기업들이 설립되어 석유 수입을 자국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이들 기업들은 오늘날까지도 건재하여 지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 및 메이저 석유회사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OPEC의 고유가 정책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석유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거의 악몽이다. 석유에 관한 한 표면적으로는 라틴아메리카가 피해자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차베스의 출현은 거꾸로 라틴아메리카가 석유 때문에 겪은 악몽에 대한 반발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순탄한 과정을 거쳤다고 평가를 받는 멕시코의 석유 국유화마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멕시코의 석유 국유화가 비교적 수월했던 것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배후에 적을 둘 수 없었다는 특수한 국제 정세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순순히 미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석유 국유화에 따른 막대한 보상금을 챙기는 와중에도 멕시코 원유의 생산과 수출 등 각 단계에 걸쳐 조직적인 봉쇄를 시도하였다. 또한 유가를 최대한 동결시키고 정유 단계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정유 능력이 부재하거나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가격 결정권을 상실하게 되어 원유 역시 다른 원자재나 곡물과 마찬가지로 헐값에 거래되었다.

석유 메이저들의 횡포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베네수엘라였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당시 석유 국유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이저 석유회사들의 농간

에 더욱 취약했다. 카카오와 커피를 주로 생산하던 베네수엘라는 1922년 대규모 유전이 개발되면서 1950년대에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그 혜택은 일반 국민들에게 별로 돌아가지 않았다. 1달러의 석유 파생물이 11달러에 팔릴 경우 메이저 회사들에게는 10달러가 돌아갔지만 베네수엘라의 몫은 1달러에 불과했다. 그나마 1957년 석유 1배럴은 평균 2.6달러였지만 1970년을 전후해서는 평균 1.86달러까지 하락했다. 1957년의 경우 스탠더드 오일이나 셸처럼 베네수엘라에 진출한 메이저들은 전 세계에서 거둔 순이익의 절반을 베네수엘라에서 얻을 수 있었다. 더구나 이들은 뇌물과 내정 개입을 통해 부패한 독재자와 고위 관료들의 비호와 협조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먼저 농업이 몰락하였다. 석유 개발을 위해 적절한 보상 없이 토지를 무차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제조업이 성장할 만한 기반은 아예 상실되었다. 석유 특수의 혜택을 입은 부유층들은 모든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했다. 농업의 몰락, 원가 절감을 위한 석유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은 이들을 빈민으로 내몰았다. 1950년대 그토록 풍요를 구가하던 나라였건만 국산품을 구매해 줄 내수시장의 형성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1973~1974년과 1978~1979년 두 차례에 걸친 OPEC의 석유 무기화 정책과 1976년의 석유 국유화 조치 등으로 베네수엘라 역시 한때 배럴 당 40달러에 이른 국제유가로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소득 재분배 문제나 빈부 격차 등은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 그러나 급격한 유가 상승의 후유증으로 세계경기가 크게 둔화되고,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에너지 대책을 수립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나서면서 1986년 유가는 다시 배럴 당 1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이미 1983년부터 외채위기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했고, 지난 60년

동안 석유가 베네수엘라 사회에 남긴 구조적 모순이 마침내 폭발하게 되었다. 차베스의 1992년 쿠데타, 1999년 집권은 자원의 저주에 대한 베네수엘라인들의 응답이었다.□

참고문헌

- 안드레 군더 프랑크. 2003. 『리오리엔트』. (이희재 옮김). 이산.
- 에두아르도 갈레아노. 2005. 『불의 기억』 제1권. (박병규 옮김). 따님.
- 이성형. 2003.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까치.
- 이승덕. 2006. 『브라질 들여다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우석균. 2008. 『잉카 in 안데스』. 랜덤하우스.
- 장 코르미디에. 2005. 『체 게바라 평전』. (김미선 옮김). 실천문학사.
- C. 푸르타도. 1985. 『라틴아메리카 경제발전사: 식민지 경제구조와 그 유산』. 2판. (윤성옥 옮김). 한길사.
- Eduardo Galeano. 1985. *Las venas abiertas de América Latina*. 60a ed. corregida y aumentada. Madrid: Siglo XXI.
- Juan González. 2000. *Harvest of Empire: A History of Latinos in America*. New York: Penguin Books.
- Duncan Green. 2006. *Faces of Latin America*. 3rd ed. updated and revised. London: Latin America Bureau.
- Benjamin Keen. 1991. *Latin American Civilization: History and Society, 1492 to the Present*. 5th ed. revised and updated. Boulder/San Francisco/Oxford: Westview Press.